

중국과 일본 '진정한 이웃' 될 수 있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2-02-21 17:49



'일본비평' 최신평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특집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이웃관계를 만들어오지 않았다. 경제적 관계를 아무리 심화시킨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냉담한 관계이다."(고야스 노부쿠니 일본 오사카대 명예교수)

"(중국은) 한동안 일본을 배우는 근대화의 '열등생'으로 동정을 받고 그 낙후성도 일종의 '향수'처럼 취미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21세기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기로 이번에는 '위협'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다."(류젠후이 전 베이징대 비교문학 연구소 부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펴내는 반년간지 '일본비평' 최신평(제6호)는 특집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중일 관계를 재조명했다.

'일본비평' 편집자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중일 관계는 한반도의 명운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서 "중일 관계는 그 단계마다 한반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일본비평'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중일 관계를 고찰한다.

양일모 한림대 교수는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에서 일본 중국학의 사상적 계보를 추적하고, 류젠후이(劉建輝) 전 베이징대 비교문학연구소 부교수는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 근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에서 근대 이래 일본이 만들어온 중국 이미지를 분석한다.

류 교수는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중국을 열등생으로 비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류 교수는 일본의 중국상이 2차세계대전 후에는 속죄적, 동경적으로 변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위협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고야스 노부쿠니 일본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특집 시론 '일본 지식인과 중국 문제'에서 19세기 이래 중국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태도를 고찰한다.

고야스 교수는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에서 중국을 전체적이고 미개한 이미지로 그려낸 이래 중일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본질적인 이웃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마루카와 데쓰시 메이지대 교수는 '일본 매스미디어의 혐(嫌)중국과 중국의 민주'에서 중국의 '민주'를 논할 때는 중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손안석),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중국 : 구상과 현실'(이철호),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김규판) 등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yunzhe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밴드 한류'에 도전한다..2012서울소닉 내달 시작

☞ "민주 비리혐의 심사기준 더욱 엄격해야"(종합2보)

☞ <뉴타운사업 지방은> 곳곳서 '천덕꾸러기' 전략

☞ '하이킥! 짧은 다리...' 스페셜 방송

☞ 與 총선후보자 이틀째 면접..도덕성 검증(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523516>

인쇄하기 취소